

# 독립정신

2017. 7, 8 통권 94호

권두언\_<3.1운동-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나라의 근본(根本)을 바로 세우는 '문화국가운동'을 시작합니다\_이두엽

특별기고\_왜 지금 다시 몽양 여운형인가?\_이부영

친일파와 그 후손들\_양지만을 쫓은 문인... 친일문학상을 거부하라\_최광웅

우리고장의 독립운동\_전주\_홍성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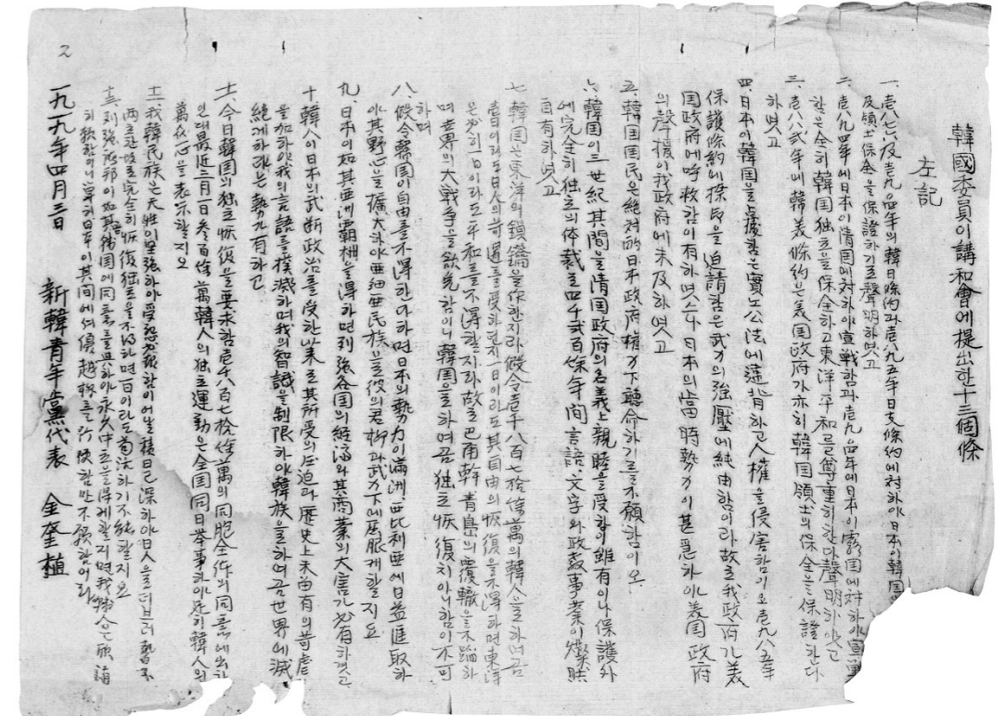
다시 보는 좋은 기사\_한국군, 국민의 군대 맞나\_곽병찬

### 파리강화회의의 대표단



1919년 3월 13일 파리에 도착한 김규식은 시내 샤토앵 거리 Rue de Châteaudun에 '강화회의의 한국민대표관'을 설치하였다. 이 대표단은 그 뒤 '주(駐)파리 한국통신부'가 되었고, 초기 조직은 위원장 김규식, 부위원장 이관용, 서기장 황기환 등이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규식을 외무총장과 파리강화회의의 대한민국 위원 겸 주(駐)파리 한국통신부 대표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 신한청년당 대표 명의로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독립요구서(1919.4.3)



신한청년당 대표 김규식이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독립요구서이다. 일제의 불법 침략과 주권 찬탈 과정을 폭로하고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1918년 11월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가 독립운동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여운형은 조동호·장덕수·김철·선우혁·한진교·김규식·서병호 등과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하였다. 열강들의 약소국 의견 무시와 일본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당초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지만, 대표단이 선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한국 문제가 국제 문제로 부각되었다.

# 독립정신

2017 7\*8

통권 94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이두엽, 곽태원, 최석우, 김대영, 이일선, 조은희  
편집·디자인 | 대관인쇄

우 0317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7837@daum.net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04** 권두언  
나라의 근본(根本)을 바로 세우는  
'문화국가운동'을 시작합니다  
| 이두엽



**08** 특별기고  
왜 지금 다시 몽양 여운형인가?  
| 이부영



**16** 친일파와 그 후손들(14)  
양지만을 쫓은 문인... 친일문학상을 거부하라  
| 최광웅

**21**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  
우리고장의 독립운동 - 전주  
| 홍성덕

**30** 다시보는 좋은 기사  
한국군, 국민의 군대 만나  
| 광병찬

**33**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술과 아편으로부터 조선의 황폐화를 지킨  
"이효덕"  
| 이윤옥

**35** 영화읽기  
영화 <파란나비효과>,  
사드를 향한 어느 시민 사회의 목소리  
| 이두희

**39** 독자투고  
일제 강점하의 한반도 사회상  
| 윤성환

**43** 임정서가  
박열, 불온한 조선인 혁명가  
인물로 보는 해방정국의 풍경  
고려사람들 까레이스키  
조소앙 평전  
| 편집부

**49** 독립정신 이모저모



# 〈3.1운동-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나라의 근본(根本)을 바로 세우는 ‘문화국가운동’을 시작합시다



이 두 엽  
사단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이사  
전주대 객원교수

염치(廉恥)

청렴할 염(廉) 부끄러울 치(恥)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치거나 할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교국가 조선에서 아이들 교육을 할 때도 가장 앞서서 강조했던 덕목이었을 테고, 사회 지도층 인사였던 선비들을 평가할 때도, ‘염치를 아는 사람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한국 사회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씨, 서울법대를 나와 젊은 나이에 독재의 독 이빨이 새겨진 유신헌법을 만들고, 정보부에서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억울한 영혼들을 고문·학살했으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국회의원,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KBO 총재,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맡아 권력과 영화를 누릴 대로 누린 인물. 그가 TV 생중계에 나와서 마치 로봇처럼 하는 말을 국민들은 몸서리치며 들어야 했습니다.

“모른다.”

“들은 바 없다.”

“기억이 안 난다.”

국민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염치를 모르는 인간’의 전형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 때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선거를 지시하며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2017년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재판관을 통해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 바로 ‘우리’ 들이었습니다.

세월호와 국정농단게이트를 TV생중계를 통해 지켜봤던 주권자 ‘우리’ 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들의 민 낮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배층이 국정을 농단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재벌들이 경제를 농단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소위 전문가들이 교육현장을 농단하는 ‘부끄러운’ 나라

대한민국이 ‘근본(根本)’이 무너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천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1운동 100년이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열들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하늘의 뜻이 있어서, 광화문 광장에 1,200만 촛불이 모였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우자!” 촛불혁명의 거대한 함창이었습니다.

백범 김구선생님이 꿈꾼 나라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문화국가의 꿈’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중에서-

얼마 전 고속버스터미널에 갔다가 지하상가에 들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50여 개의 점포 간판 중에 한글 간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식민지를 거  
침없이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은 ‘뿌리와 날개’입니다.  
자민족의 ‘뿌리’를 바르게 알게 하고, 세계로 가는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교육이라고 그  
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민족문화의 ‘뿌리’를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방과 후 학  
습에서 선택과목으로 배우라는 식이지요...자기 자식을 서자 취급하는 잘못된 교육입니다.  
문화 국가를 위한 교육과정의 일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도로와 철도가 놓여지고 근대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고 통계조작을 일삼는 소위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관변통계자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들이 국립서울대학교강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위 뉴라이트들에게 해괴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을 ‘별 가치 없는 존재’로 능멸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  
들, 뉴라이트세력입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문화국가를 위한  
교육·문화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민간차원에서 작게나마 ‘뿌리를 찾는’ 문화운동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일상의 언어생활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굴종과 억압의 언어를 추방하고 ‘반말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반말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한국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일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일상의 생활에서부터 공공성(公共性)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동학혁명기에 세워졌던 ‘집강소 민주주의’가 펼쳐져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가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과잉경쟁 체제의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해야 합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꿈을 전세계에 실현해나가는,  
21세기 르네상스를 한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평등, 생명의 동학정신이 ‘대동(大同)사회의 꿈’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지난 100년의 세월을 세계사적 차원에서 성찰하면서, 새로운 100년의 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우리’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천민자본주의 한국이 아닌,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의 꿈,  
선열들이 그렇게도 꿈꾸던 그런 나라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새로운 문화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 왜 지금 다시 몽양 여운형인가?



이 부 영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오는 7월 19일은 몽양 여운형 선생 70주기 되는 날이다.

해방공간에서 좌우합작, 독립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12차례의 테러를 당한 끝에 순국하신 몽양 여운형 선생을 위한 추도식을 오후 1시 백범기념관에서 갖는다. 몽양 선생의 추도식을 백범기념관에서 갖는 까닭은 해방정국에서 두 거두가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연대하고 실행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결국 두 분께서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벌이시다가 잇따라 분단세력들에게 테러로 희생되신 것을 추모하려는 뜻이다. 또한 찬탁-반탁으로 민족운동 진영이 쪼개지도록 진실을 왜곡한 친일분단세력의 음모도 드러내려는 뜻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다,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이다, 북한의 핵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가 임박했다,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가 곧 완료된다, 미국의 북 선제 타격이 곧 있을 것이다, 등등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정권이 바뀌고 대결이 대화로 바뀌는 듯하다. 아직도 한반도에서는 대결과 대화가 널뛰기 춤을 춘다.

미-소의 냉전으로 치달던 해방공간에서 온몸으로 분단과 동족상잔전쟁을 막으려고 애쓰시다 순국하신 몽양 선생이 오늘 살아계신다면 어떤 자세로 나서실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70주기를 맞는다.

우익으로부터는 ‘빨갱이’로, 좌익으로부터는 ‘미제의 앞잡이’, ‘회색분자’로 매도당했던 몽양 여운형 선생은 2008년 2월 노무현 정부 마지막 날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독립운동 서훈 1급)으로 추서되었다.

우리 역사에 전에 보지 못한 비폭력 평화운동이 이끌어낸 촛불시위로 정권교체가 있었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숨 가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요즘, 필자는 아직도 몽양 여운형 선생의 70주기 추모행사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경기도 양평군 지방자치단체가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를 몽양기념관 위탁운영에서 몰아내려는 냉전적 마녀사냥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몽양 여운형은 아직 복권되지 않았고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1급 독립운동 서훈자에 대한 왜곡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 몽양 여운형은 누구인가?

선생은 양반 가문의 종손으로 태어났으나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봉건유제를 과감히 혁파했다. 신주를 땅에 묻고 단발을 하고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토지를 노비들에게 나눠줬다. 신학을 익히기 위해서 중국으로 나가기 전에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운동기지를 방문, 해외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벌이기로 뜻을 세웠다.

월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고 파리에서 열리고 있던 제1차 세계대전 강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 김규식을 파견하기로 했다. 독립청원의 주체가 필요했으므로 터키의 케말 파샤의 터키청년당을 본받아 신한청년당을 조직, 김규식을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견했다. 신한청년당은 한국 근대정당의 효시가 되었다. 파리강화회의 독립청원서 제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동경유학생 출신 장덕수 이광수 최익한을 유학생들이 모여 있던 일본 도쿄에 파견, 2.8독립선언서를 발표토록 했다. 장덕수 등 청년들은 2.8선언서를 가지고 다시 국내로 입국하여 손병희 등 지도자들에게 소식을 전해 3.1독립운동을 일으키도록 계획했다.

몽양 선생 자신은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집결해있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달려가서 독립청원 소식을 전하고 많은 운동가들이 상해로 집결하도록 권했다. 상해가 모든 국제적 정보와 홍보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몽양이 상해로 돌아오는 도중에 국내의 3.1운동이 분출하고 있었다. 상해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전 세계에 그 소식을 전했다. 이어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작업에 참여했다. 몽양 선생은 지금의 국회의원 임

시의정원 초대의원이다. 그러나 다수 인사들이 조선왕실을 ‘우대’ 한다는 복벽론(復辟論)에 찬성하자 몽양은 임시정부 활동에서 멀어지고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20세기 초에 약소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적극적이었던 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조선의 독립운동에 호의적이었던 중국의 국민혁명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 몽양 여운형(1886년 5월 25일~1947년 7월 19일),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과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자료사진

몽양 선생은 국내에 있을 때부터 농구, 야구, 축구 등 스포츠에도 열광했다. 독립운동 중에도 마찬가지였다. 중국대학의 축구팀을 인솔하고 동남아를 순회하기도 했다. 일본경찰에 붙잡혀 본국으로 송환된 것도 상해 야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복역 후 몽양 선생은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을 맡았다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경기에서 손기정 선수가 1위로 들어오는 사진의 일장기를 말소해버린 사건으로 신문이 폐간되고 몽양은 사장직을 물러났다. 조선중앙일보 주최 마라톤대회에서 발굴된 손

기정 선수는 몽양 선생 아들의 양정고보 친구였다. 그 뒤 다시 예비검속으로 수감되었다가 풀려나면서 일제의 패망이 임박했다는 확신에 따라 ‘건국동맹’이라는 전국적인 비밀조직을 결성했다. 고향인 양주 봉안에 머물면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단체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양주의 용문산에는 농민조직이 만들어졌고 징병을 피한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국내의 독립운동 조직이 활동을 정지하고 있을 무렵 몽양의 건국동맹은 가장 활발하게 임박한 민족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몽양의 지도노선의 유연성, 친화성, 개방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건국동맹은 계급운동이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이었기 때문에 농민 노동자 지식인 자산가 등 광범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었다.

8.15 민족해방이 오자 몽양의 건국동맹은 신속히 건국준비위원회로 전환했다. 일제의 조선총독부도 정무총감 엔도를 보내 자신들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받기 위해 몽양에게 질서유지를 위한 치안유지권을 맡겼다. 몽양은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김성수측의 송진우에게 여러 차례 참여를 권유했지만 송진우는 임정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건준은 인민공화국으로 전환하였다. 9월에 진주한 미 점령군은 인공을 비롯한 상해의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정은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서 부역했던 경찰, 군, 관료와 친일 기업인 지주 등을 기용해서 군정 기구를 구성했다. 건준과 임정 측은 해체를 요구 당했고 친일세력은 미군정의 비호를 받았다.

몽양 선생은 한민당계 인사들과 친일파들의 모략으로 미군정과 처음부터 순탄치 못한 관계를 가졌다. 암살당하기 하루 전인 1947년 7월 18일 ‘보이스 오브 코리아’ 발행인 김용중에게 건네준 자필 영문 서한에서 “(미군사령관) 하지장군은 악수를 나눈 뒤 내게 첫 질문을 던졌소. ‘왜놈(Jap)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대답은 ‘아무것도 없소’ 였소. 나는 그의 질문과 불친절한 태도에 기가 막혔소.” 한민당계와 친일 인사들은 몽양에 대해 미군정에 모함과 비난을 집중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건준과 인공이 점차 공산당의 장악 아래 들어갔다는 점이다. 당초 몽양은 인민공화국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를 표방할 경우 미군정을 비롯한 다른 많은 정파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몽양 세력을 무시하고 조직 장악 수단으로 ‘인공’을 선포했다. 몽양은 조선인민당을 새로 조직했다. 그것은 조선공산당과도, 한국민주당과도 다른 정당임을 보여주려는 의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인민당도 공산당의 침투로 그들의 주도 아래 놓이게 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은 남한 사회를 뒤흔들었다. 해방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신탁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모스크바 신탁통치 결정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로 왜곡되어 국내에 알려졌다. 당초 미국은 5년 이상의 신탁통치를 제안했지만 소련이 될수록 빨리 독립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 3년 신탁통치로 합의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소련이 미국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신탁통치안을 주장해 관철했다”고 뉴욕발로 먼저 왜곡 보도했다.

이승만, 김구 등 우파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선동했다. 당장 독립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강대국 세 나라가 합의한 것을 받아들이고 일정한 신탁통치를 거친 뒤 독립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이 몽양의 생각이었고 좌익의 판단이었다. 3상회의의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소공위가 진행될 수 없었고 남북에 각각 단독정부가 세워질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었다.

신탁통치를 둘러싼 찬반으로 갈린 정국 때문에 중단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미·소공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던 몽양이 미소공위의 가장 적합한 협의대상 인물이었다.

좌우합작의 성공은 이승만 등 우파인사들의 주도권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공산당으로서는 몽양이 미군정과 남북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좌익진영의 주도권을 잃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정치적 배경 속에 몽양의 제거에 좌우 양측이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었다. 몽양에 대한 테러기도가 빈번해졌다.

공산당은 우선 3당 합당(인민당, 신민당, 공산당)으로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을 만들어 몽양의 좌우합작의 세력기반을 붕괴시키려 했다. 그에 대응해 근로인민당을 창당했지만, 그것마저 다시 공산당 측이 장악했다.

아놀드 미 군정장관이 몽양에게 민정장관을 제의하여 그 임명장을 받으려고 만나러 가는 길에 그는 암살당했다. 몽양이 세상을 떠나자 좌우합작운동, 통일정부 수립운동은 막을 내리고 분단으로, 동족상잔 전쟁으로 가는 광란과 광기만 지배하게 되었다.

몽양이 세상을 떠난 뒤, 백범 김구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북행을 통해 분단을 막아 보려 했지만 백범마저 1949년 암살당하고 말았다. 몽양이 좌우합작운동을 벌였을 때 백범 김구가 함께 했을 경우를 생각해본다. 두 분의 합작은 좌우의 합작이었을 뿐 아니라 양심적인 독립운동가-정치인의 합작으로서 남북한 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몽양 여운형은 왜 알려져 있지 않은가?

몽양 여운형이 세상을 뜬 뒤 그의 이름은 금기가 되었다. 그는 좌익의 대명사가 되었고 북진통일 이외에는 모두 용공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평화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가 되어 버렸다. 백범 김구마저 암살당하고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몽양 여운형의 이름은 지워졌다. 90년대 초까지도 몽양 여운형의 묘소에 7월 19일 기일을 맞아 조문하는 참배객들은 경찰 정보형사들에게 신분증을 요구받았다. 민주화로 다시 평화통일운동이 되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몽양은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독립운동 서훈 2급)에 머물렀다가 2008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날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급)으로 승급되었다.



## 3. 몽양의 사상은?

몽양 여운형은 그의 시대에 우리 민족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사상-사조와 만났다. 양반 가문의 종손으로 태어난 그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봉건적 사상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중국으로 망명,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면서 '조선 독립'에 도움이 되는 사상이면 어떤 것이든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기독교,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독립운동에서는 모두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해방공간에서도 그는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파가 건국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봤다. 몽양은 진보적 민주주의자, 특히 통일정부 수립에 있어서는 '역동적 중도노선을 지키려 했다. 그는 공산주의자로부터는 '미제의 앞잡이', '회색분자'로, 우익으로부터는 '빨갱이', '기회주의자'라고 매도당했다.

건국과업의 경제부분에 있어서 몽양의 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드러나고 있다.

“...일체의 제국주의적 봉건잔재의 숙청은 우리 민족의 경제생활의 면에서도 철저히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니, 이것은 일제 시설인 산업운수기관 등의 몰수와 토지문제의 평민적 해결에 의하여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탕공작은 어디까지나 신국가의 부강과 민족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니, 산업의 특수한 부분이나 기관을 국영-공영으로 하는 이외에는 광범한 사영(私營)을 용인하여 이윤의 자극과 개인의 창의에 의한 자본주의적 발전의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는 것은 현하(오늘날) 조선사회의 발전단계로 보아 필요한 정책인 것이며 토지개혁에 있어서도 토지에서 유리되는 지주에게 생계의 개척과 근로의 기회를 열어주는 국가적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소시민의 다대한(많은) 부분이 그 중소재산을 토지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실정과 토지개혁의 건설적 의의를 연결하여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져야 되는 것이며 다양한 시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정책과 아울러 근로인민 대중을 위하여 조직된 광범하고 전체적인 노동입법의 제 정책은 신국가 건설의 기본문제로서 절대적 중요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모든 성원에게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여 실업을 절멸하고, 8시간 노동제와 노동 제 보험, 단체계약권의 확립을 위시한 노동조합 활동의 국가적 보장 등 근로인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한 일체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건국사업에 대한 사건”, <독립신문> 18~22쪽, 1946.10)


#### 4. 몽양 여운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몽양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때나, 국내로 압송되어 합법-비합법 항쟁을 벌일 때나, 해방공간에서 좌우합작 통일독립 정부수립 투쟁을 벌일 때나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민족의 자주독립과 통일정부 수립에 매진했다.

1945년 이후 몽양이 비명에 세상을 떠나던 시기는 미-소의 냉전이 첨예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로서 분단이 거의 절망적으로 다가오던 때였다. 좌우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정파들이 미-소 점령군 분할점령 정책에 부응하여 남북 각 지역에서 새로 형성되는 주도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광분하고 있었다. 분단을 위해, 점령군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다. 동족상잔의 전쟁을 거치면서 이런 남북의 기득권 체제는 70년 이상 유지-강화되어 왔다.

냉전시대가 지나고 온전히 국가패권 시대에 들어섰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여전히 이념대결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념이 아닌 세력권 대결로 다시 강화되는 모습을 보

이는 한반도 주변 정세는 미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미국의 한 세기 패권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중국 일본 남북한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퇴장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모색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 지난 70여년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질서 속에서 기득권층을 형성했던 세력들은 미국의 퇴조가능성에 예민한 불안감을 드러낸다.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이 동아시아평화공동체를 내다보면서 북핵이라는 불덩어리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는가에 한반도의 미래, 평화통일의 내일이 달려있다고 하겠다.

죽음을 무릅쓰면서 강화되는 냉전분단과 맞서 싸웠던 몽양의 처지에 비한다면, 오늘의 우리 처지는 행복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비록 분단이 되어 있기는 해도 해방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의 역량은 남북 내부의 역량 축적과 합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요구를 반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남쪽의 처지에서 남북의 교류협력 평화공존의 원칙을 굳게 견지하면서 연미화중통로섭일(聯美和中通露攝日)의 대외정책을 택한다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세월이 가도 헌신적이고 정직한 리더십은 변함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그 리더십을 몽양에게서 찾는다. 

# 양지만을 쫓은 문인... 친일문학상을 거부하라



최 광 응  
데이터정치연구소 소장

지난 7월 2일 오후 송경동 시인이 SNS에 올린 글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더니 급기야 10여개 언론사까지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3000만원짜리 문학상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 거부했다. ‘2017 미당문학상’ 후보로 올리려 한다고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왔다. 적절치 않은 상이라고 했다. 미당의 시적 역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친일 부역과 5.18 광주학살과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그 군부정권에 부역했던 이를 도리어 기리는 상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말미에라도 내 이름을 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건 어쭙잖은 삶이었더라도 내가 살아 온 세월에 대한 부정이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 왔고, 살아가는 벗들을 부정하는 일이며, 식민지와 독재로 점철된 긴 한국의 역사 그 시기동안 민주주의와 해방을 위해 싸우다 수없이 죽어가

고, 끌려가고, 짓밟힌 무수한 이들의 아픔과 고통 그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 의아스러웠던 건 내 시를 그들이 오독(물론 시는 읽은 이들의 것이지만)한 일이다. 내 시를 존중해 주는 눈과 마음이 있었다면 도대체 나와 ‘미당’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때론 더 긴 시간 평행선을 달리며 만나지 말아야 할 아름다운 인연도 있다. 좀 더 일찍 ‘미당’과 화해를 시도하고 만난 문우들, 선생님들도 있다. 그들에게 나의 잣대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누구에게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라도 가야하는 길들이 있을 것이다. 조금은 외롭고 외지더라도 내가 걸어보고 싶은 다른 길이 있다고 믿어본다.”

이처럼 과거사 청산, 즉 친일 및 독재 잔재 청산은 우리에게 남겨진 미완의 과제이다.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과거사 청산과 같은 적폐청산 요구를 한 몸엔 안을 수밖에 없다.

송경동 시인은 2016년을 강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핵심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구미공단 스타케미칼 최장기 고공농성 등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 활동을 주도해 ‘거리의 시인’으로도 불린다. 특히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이어 달리게 한 죄로 체포돼 <신동엽 창작상> 수상 소식을 유치장 안에서 전해 들어야 했다.

송 시인이 수상을 거부한 <미당문학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미당 서정주의 사망 다음 해인 2001년 중앙일보가 미당의 문학적 업적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제정한 상이다. 제1회 수상자는 그해 9월 11일 정현종 시인이 선정됐다. 상금도 시 분야로는 대단히 파격적인 3000만원이다. 한편 같은 날 민족문학작가회의 전국 12개 지회는 일제히 미당문학상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는데, 당시 충북지회장을 맡고 있던 도종환(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인의 이름도 눈에 띈다. 그리고 이때도 후보로 선정된 바 있던 고(故) 오규원(서울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인이 수상을 고사한 기록이 남아있다.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벽>이라는 시로 등단한 미당은 85년 평생 동안 1천여 편의 시와 산문을 남겼다. 재미있는 일화는 그해 9월 독자투고로 보낸 시를 신문사 측에서 신춘문예 응모작으로 잘못 분류하는 바람에 시 부문 최종 당선작으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 작품은 ‘일제에 억눌렸던 청년들의 울분과 절망감을 토로한 내용’이다. <동아일보> 1934년 5월 8일자 지면을 보면, 서정주는 이미 <서울 가는 순이에게>라는 제목의 시를 독자투고 형식으로 발표한바 있다.

이 당시 미당의 시 세계는 토속적이 질거나 젊은이의 격동을 노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1915년생인 서정주는 광주학생운동사건으로 구속 및 중앙고보 퇴학(1929년), 중앙고보

동맹휴학 및 습격사건 관련으로 종로경찰서 조사 및 기소유예(1930년), 제2회 브나로드 계몽대원 참가(1932년) 등 이른바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적지 않은 혼란기를 겪은 후 본격적인 문학청년의 꿈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정주가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들어선 것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0년대 이후이다. 그는 1942년 7월 7일 13일~17일자 <매일신보>에 창씨개명인 다츠시로 시즈오(達城靜雄)라는 이름으로 평론 <시의 이야기-주로 국민 시가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시와 수필, 중군기 등 친일문학작품을 닦치는 대로 쓰기 시작한다. 1943년 <국민문학>에 <항공일에>, 1943년 <조광>에 단편소설 <최제부의 군속 지망> 및 르포 <보도행>, 1944년 12월 9일 <매일신보>에 <마쓰이 오장 송가> 등 10여 편의 친일 시와 수필, 그리고 단편소설 등을 남겼다.

특히 <항공일에>, <헌시>(1943), <오장 마쓰이 히데오>, <무제>(1944) 등 등 4편의 시는 일본말로 발표한다. <마쓰이 오장 송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대는 우리의 자랑...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제 특별공격대원...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채에... 원수 영미(英美)의 항공모함을...” 등 정말 구역질이 물씬 나도록 일제의 침략전쟁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미당은 1942년 최재서가 운영하는 <인문사>에 입사하며 여기에서 발행한 친일잡지 <국민문학> 편집에 간여하는 등 친일행적이 극에 달한다. <국민문학>은 일제가 황도정신(皇道精神) 구축의 일환으로 1941년 11월 창간했으며 1942년 5·6월 합병호부터는 아예 일본어로 발행했다. 특히 서정주는 최재서와 함께 조선문인보국회에서 파견한 조선군 보도반원(중군기자)으로 일군 사병군복을 입고 취재 활동을 했다. 최재서 역시 일찍이 중일전쟁 이후 최대 친일문인단체인 조선문인협회 발기인,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조선문인보국회 상임이사 등을 지낸 전력으로 반민특위에 구속된 1급 친일문인이다.

서정주가 남긴 친일작품은 대부분 “대동아전쟁은 일본의 침략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400년 침략 마수에서 10억 동아인을 구출하고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는 성전(聖戰)으로 미화하면서 학병지원을 권유하고, 징병의 필요성과 의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동조하는 주장이다. 그는 이 작품들을 1943~44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데 1986년 <동서문학>에 “그렇게 해방이 빨리될지 몰랐다.”고 구차한 변명을 한다. 1992년 계간 <시와 시학> 봄호 대담에서도 “친일 문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젊은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로 새삼 아픔으로 다가온다.”라며 끝내 상황론으로 일관했다. 같은 해 4월 <신동아> 기고에서는 한 술 더 떠 “그 동안 내가 써온 시나 그 밖의 글 중에서 일정 말기에 쓴 (단지) 몇 개의 글이 ‘친일파’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분개하고 친일시

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징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일문학을 한 것처럼 오히려 호도하였다. 하지만 1943년은 이미 카이로 회담을 통해 일본의 패망과 조선독립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었으므로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상태였다.

권력과 양지만을 좇아 해바라기처럼 움직인 서정주는 해방 이후에도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다. 1946년 좌익계의 조선문학가동맹에 맞서는 우익계 투쟁 전위조직인 조선청년문학가협회(회장 김동리) 결성에 앞장서서 시 분과 위원장을 맡았고, 그 후신인 한국문학가협회(회장 박종화, 1949년)에서도 시 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며 반공투사로 탈색했다.

미 군정 시절 서정주는 대표적 친미(親美)파로 거듭났다. 1948년 4월 27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가 주최한 전국추진강연회에 서정주가 ‘문화인의 당면 임무’를 주제로 하여 문인 대표로 나섰으며, 격무로 사망한 제2대 군정장관 아처 러치 소장의 1주기(1949년 9월 12일)에 추도사를 낭독한 이는 다름 아닌 미당이였다.


조선춘추사 편집부장(1945년), 동아일보 사회부장(1948년) 등으로 잠시 외도를 한 미당은 이승만 전기 출간 작업에 참여한 인연으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초대 문교부 예술과장 자리를 꿰찬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서정주는 애국단체연합회 주관 승리원수총궐기대회에 강사로 참여(1950년 11월 22일) 및 문총 구국대 결성에 앞장서는 등 후방의 선무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예술원 회원(1954년), 불교문화예술원 부이사장(1963년), 현대시인협회 회장(1971년), 한국불교문학가협회 회장(1971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1977년), 범세계한국예술인회 초대 이사장(1984년) 등을 역임하면서 문화 관변단체의 핵심인물로 떠오른다.

이 과정에서 미당이 보인 추태는 헤아릴 수가 없다. 5·16쿠데타 1주년 기념으로 농어촌 부흥에 관한 순회강연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5월 전후 문인협회 주관으로 전국 문예 대강연회를 다니며 관변행사를 조직했다. 1968년 1·21 사태 직후에는 서울시민회관에서 ‘북괴 만행을 규탄하는 지식인대회’를 열었는데 미당이 애국시를 낭독했다. 1972년 5월 11일에는 김동리와 함께 새마을사업 현장시찰을 나가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수행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실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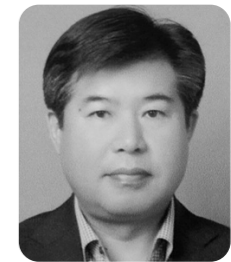
미당의 권력지향은 5공정권이 들어서며 노골화된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TV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민정당이 처음이다. 1981년 2월 1일 밤 10시부터 30분간 KBS 1TV를 통해 12대 대통령에 출마한 민정당 전두환 후보의 방송연설원 첫 주자가 바로 서정주다. 그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국력을 신장시켜주고 민생을 좋게 이끌어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두환 후보는 누구보다 이 양 면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력을 갖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역설한다. 역시 우리나라 정치사상 최초의 정당 후원회는 1981년 8월 27일 발족한 ‘민정당 중앙당 후원회’다. 사회 저명인사 21명 등 374명이 창립 회원인데 바로 서정주의 이름이 선두에 보인다. 1986년 5월 16일자(하필이면 5월 16일이다) 매일경제 칼럼에서는 원로 시인의 이름으로 “야권의 정권욕이 지금의 난국을 부르고 화염병을 던지고 각목을 휘두르며 타도를 외치는 재야 학생들의 좌경의식”을 비판한다. 그리고 또 1987년 1월에는 전두환의 56회 생일을 맞아 예찬시를 바쳤는데 “86아세안 게임을 열어 일본도 이기게 하고 또 88서울올림픽을 향해 늘 꾸준히 달리게 하시고...” 정말로 가관이다. 정권이 바뀌고도 미당의 권력을 향한 추파는 계속된다. 노태우 당선자 시절 민주화합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는데 1988년 2월 10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서 발포 명령이 부득이했다고 본다. 진압 태도가 지나쳤다면 대대장 또는 중대장 선인데 그들에게 사과하라고 할 수 있겠나. 법적으로 책임질만한 사람이 없다고 본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서정주는 한국 시단의 천재 중 하나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으나 참지 못할 권력욕 때문에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식인들은 일제에 저항했다. 또한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부정권 아래에서도 그의 동료들은 양심을 걸고 항거했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된 명명백백한 친일파이며 가족으로는 2남이 있다. 장남(1940년생)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변호사, 차남(1957년생) 역시 미국 듀크대 의사이며 국내에는 후손이 없다. 

## 우리고장의 독립운동 - 전주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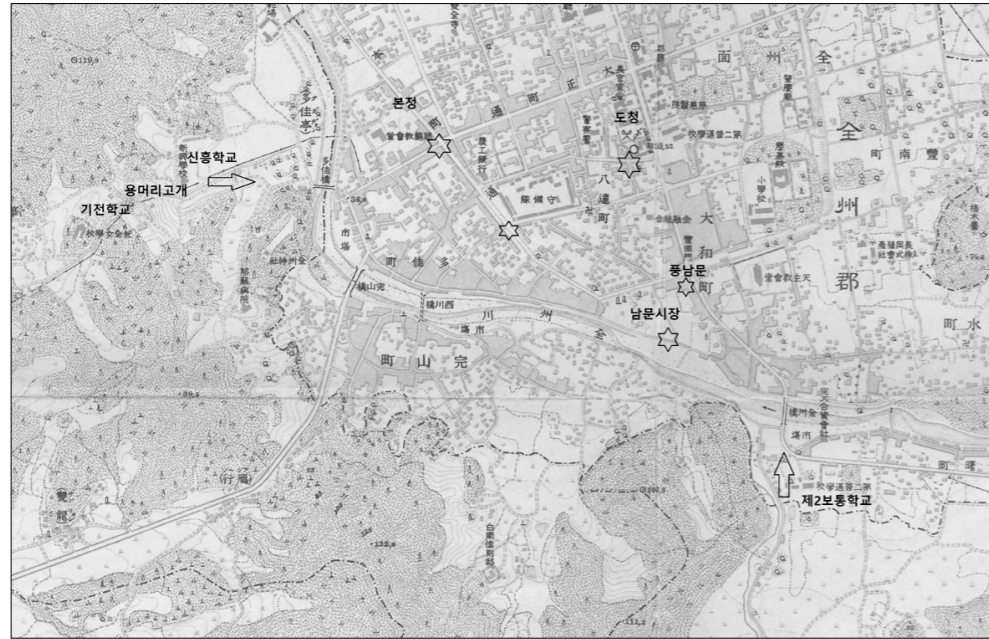
### 천년의 꽃심, 전주 유토피아를 꿈꾸다.

전주는 뜨겁다.

최근 10년 전주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온 도시는 매우 드물다. 판소리와 부채, 비빔밥과 막걸리 등의 전통적 이미지를 모두 담아 녹여낸 한옥마을이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떠올랐다. ‘전주 한옥마을’은 2002년에 붙여진 이름이다. 전주에서는 교동과 풍남동 일원으로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20년 넘게 제한된 곳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전주는 한국의 전통문화중심도시로 바뀌었다.

그런 전주는 어떤 곳이었을까? 최명희는 『혼불』에서 전주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완산부성을 놓고 풍수사와 지상가(地相家)들이 말하기를, 행주형(行舟形)이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한 배 가득 싣고서, 순풍에 돛을 달아 항로에 오른 배를 지그시



1918년 전주지도(전주역사박물관소장)

잡아매어 둔 형상이란 말이다. 다시 말하여 나무랄 데 없는 지형을 구비한 산수형국이니, 그 야말로 백대천손 길이 길이 만세를 살아가기에 참으로 알맞고 넉넉한 곳이란 얘기지”

이러한 땅에 풍광도 수려하고, 물산도 풍부하며, 교통의 요지로서 사람과 물물의 왕래가 빈번하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이 되는 전주 완산이,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런 끔찍한 백안(白眼) 외면을 당했던 것이다.

그것은 꽃심을 가진 죄였는지도 모른다. 세월이 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을 지닌 땅. 그 꿈은 지배자에게, 근(根)이 깊은 목의 가시와도 같아서, 기어이 뽑아 버리고자 박해, 냉대, 소외의 갖은 방법을 다하게 했다. (최명희, 혼불 8권 중에서)

“꿈의 꽃심”을 지닌 땅, 지배자들에게 목에 가시와도 같은 그런 곳, 그 꿈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 억압과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패배자의 그늘에 갇혀 있었던 전주, 마한의 작은 나라를 멸한 백제를 포용하고, 그 백제가 망한 뒤에 신라의 그늘에 있었으나 백제의 꿈을 잊지 않았던 땅, 그 땅은 그래서 때로는 반역자의 땅으로 낙인찍히기도 했고, 패배자의 숙명처럼 역사에서 사라지고 왜곡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새로운 세

상을 꿈꾸면서 미륵불을 모셨고, 반역의 이름으로 왜곡된 ‘대동사상’과 혁명을 꿈꾸었던 ‘동학사상’ 그리고 ‘천주’를 위해 목숨을 내 놓을 수 있었다. 그 모든 사상이 전주에서는 하나의 뿌리였다.

백성들이 하늘인 세상과 하느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은 다른 듯 같은 전주의 마음을 담고 있다. 국가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틀이었다. 부패한 권력에 저항하였지만 외세의 억압에는 국가를 위해 힘을 합하였다. ‘국가’는 ‘권력’이 아니다. 종종 권력을 국가로 오인하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국가’를 위임한 적은 없다. 권력은 국가에 우선할 수 없다. 국가는 모든 권력에 우선하며,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의병과 독립운동은 ‘민족’의 이름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병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 땅의 선비들에게 충(忠)은 백성을 모시는 것이다. 백성이 곧 국가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전주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꽃심”인 것이다.

### 전주의 선비, 통한의 눈물을 닦고 인재를 키우다.

1910년 8월 29일 국권을 강탈당한 날 전주 한옥마을 옥류동에 사는 금재 최병심은 “어둠은 언제쯤 가고 다시 빛을 볼거냐”라며 나라가 망한 시대의 아픔을 시로 짓고 오목대 뒤 발산에 올라 7일간 단식하면서 통곡하였다. 전주에서 ‘최학자’로 불린 최병심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매국노 을사 5적의 목을 먼저 베어야 한다는 격문을 돌리는 등 일제에 저항하였다.

금재 최병심은 1912년 이석용이 조직한 비밀결사대 ‘임자동밀맹단’의 전주지역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이석용의 『호남창의일기』 「불망록」을 보면 1908년 9월부터 1913년 7월까지 5년 동안 돈(錢) 3,070냥과 목면 3필, 목화 90근, 모시 1필, 모시두루마기 1벌, 중요강 1개였는데 그 중 금재는 1909년 10월 돈(錢) 5량, 1910년 5량, 1911년 23량, 1912년 2량, 1910년 모시두루마기 1벌 등을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최병심은 을사늑약 이후 이석용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등 일제에 저항하였다.

1917년 이진호 전라북도지사가 잠업시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로 내려온 최병심 집안의 땅을 매입하려 하자 금재는 일제에는 결코 조상의 땅을 내어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일제는 수용령을 내리고 수백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가족을 끌어 낸 뒤 집을 불살라버렸다. 최병심은 결사적인 단식투쟁으로 맞섰다. 이후 최병심은 땅을 되찾기 위해 23년 동안 법정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전사건’으로 불리는 단순히 조상의 땅을 빼앗기지 않고 되찾는 개

인의 문제를 넘어 조선을 일본의 식민 농업 지역으로 강제 편입하려는 일제 식민농업정책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다. 이듬해 최병심은 일제가 만동묘를 철폐하고 제사를 폐지하려 하자 전국 유림에 통문을 보내 저항한 일로 7일간 구류를 살기도 했다.

1937년 64세가 된 최병심은 11월 친구이자 사돈사이인 염재 조희제가 쓴 『염재야록』의 서문을 쓴 일로 임실경찰서에서 갇혔다. 『염재야록』은 임실의 유학자 조희제가 을미사변 이후 한일합방 전후,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을 하다 순절한 사람들의 행적을 적은 기록이다. 1938년 염재 조희제가 『염재야록』을 편찬한 일이 발각되어 서문을 쓴 금재 최병심과 발문을 쓴 고재 이병은, 교정을 본 김영한 등이 임실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희제의 글은 물론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이 모두 압수당했다. 다행히 마루 밑 땅 속에 보관해 둔 『염재야록』 한 부가 『덕춘수록』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1950년 석판본으로 간행되었다.

“강토를 빼앗겨서는 안 되고 동족을 외면해서도 안 되며 우리의 도(道)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 세 가지야말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하물며 어려서부터 배우고 커서 실천하면서 수기치인(修己治人)하는 것이 선비의 본분일진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주 본정 우체국(구 다가동우체국)

비록 그렇긴 하지만 각자 처한 형편과 자리가 똑같은 것은 아니므로 행해야 할 본분과 의리가 때로 다르며, 그러므로 사업도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금재 최병심의 배일(排日) 저항의식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바뀌었다. 을사오적으로 처벌하라는 격문을 돌리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서 민족정신으로 유학의 도를 지켜 계승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후학의 양성에 노력하고 30년대 후반 이후 붓으로 저항을 이어갔다. 의병장 의암 유인석 선생이 난세에 선비가 선택할 세 가지의 행동 지침인 처변삼사(處變三事), 거의소청(擧義掃清) : 의병을 일으켜 역당을 쓸어낼 것, 거지수구(去之守舊) : 은둔하여 지조를 지킬 것, 치명수지(致命遂志) : 목숨을 끊어 뜻을 이룰 것 중 거지수구(去之守舊)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최병심의 행동은 그의 스승인 간재 전우(田愚)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변란을 맞이하여 가벼이 죽기보다는 학문을 일으켜 도(道)로서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처변의리(處變義理)를 택한 것이다. 처변의리는 거병의리(擧兵義理)와 같은 선택의 한 방법이었다.

### 전주의 야소교(耶蘇教) 학생,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전주에 독립선언서가 도착한 것은 3월 1일 새벽이었다. 2월 28일 서울을 출발한 인종익이 2천여 매의 선언서를 가지고 전주에 도착한 것이다. 이후 독립선언서는 다시 이리, 남원, 임실 등지로 배포되었다. 인종익에게서 1천 7백여 장의 독립선언서를 받은 전주 천도교구에서는 당일 바로 3백여 매의 독립선언서를 이리 천도교수장 이유종에게 보내어 호남선 철도 각 정거장에 살포케 하였고, 나머지는 인편으로 임실, 남원의 천도교구로 보내었고 함열, 김제, 금마, 용안, 여산 등지로 퍼져 나갔다. 이와는 달리 전주 기전여학교 졸업 후 천안 양대리의 소학교 교원으로 근무 중이던 임영신은 함태영의 지시를 받아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전주 서문밖 교회의 이돈수 장로를 찾아갔다. 이돈수 장로는 김인전 목사와 의사(醫師)인 신일용에게 전달하였다.

전주 3·1운동은 전주 천도교구 김봉득, 김신극과 신간회 지부장 박태련 등의 모임에서 구체되기 시작했다. 박태련은 신흥학교 유병민, 문병무와 기전학교 함의선, 김주순 등의 교사와 함께 학생들과 시민, 교인들이 동참하는 만세운동을 기획하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하던 중 3월 4일 군산의 독립만세운동 소식이 전해졌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만세운동 소식에 박태련과 천도교, 기독교, 신흥·기전학교 학생 등이 다시 모여 13일 전주 장날

을 만세운동 결행일로 결정하였다. 태극기는 간남대 대밭 속에 있던 박태련의 집과 신흥학교 지하실에서 목판 인쇄하였다. 한편 임영신은 김인전 목사와 상의하여 신흥학교 출신 최종삼, 김인적 목사의 동생 김가진, 서울 경동학교 학생 김중곤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준비하였고 주로 청년의사였던 신일용의 집에 모였다. 기전학교 학생들은 20여명 씩 모여 주로 이돈수 장로 집에서 비밀리에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3월 13일 전주 남문밖 시장 장날이 열리는 날 정오를 계기로 남문시장으로 들어가는 평화동 꽃밭정에서 서학동을 거쳐 남문시장으로 모여드는 장꾼들과 시위 군중에 태극기를 나누어주면서 만세운동은 시작되었다. 만세운동은 신흥학교 학생들과 기독교 남자 교인들이 남문밖으로 나와 만세를 부르며 대기하고 있던 기전여학교 학생들이 합세하였다. 서학동 제2보통학교(현 완산초등학교, 위치는 현재 전주교대 부속초등학교) 운동장 근처에서 만세를 부르며 남문으로 향하였다. 기전여학교 학생들은 남문 근처에 사는 최요한나 집에서 고종황제의 명복을 비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고, 김신희 등은 어머니등과 함께 채소 가마니로 위장한 태극기 포대를 가지고 남문밖 시장 길가를 왕래하고 있었다. 완산동과 서학동쪽에서 남문으로 향한 시위대와 합세하여 장날 남문 일대에 모여 있던 시민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지게 외쳤다.

군중은 삼시간에 불어났다. 남자들은 재빨리 기전의 결사대를 자기들 가운데로 감싸주었다. …(중략)… 감격의 눈물이 뒤범벅이 된 채 시위군중은 우편국 앞에 가서 만세를 부르고 다시 경찰서 앞에 가서 힘껏 만세! 를 외쳤다. 처음 왜경은 당황한 나머지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 도합 두 시간 동안 만세를 불렀다.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든 왜경들은 공포를 쏘고 말을 탄 채 총대를 휘둘러 무자비하게 군중을 해산시키기 시작했다. 이때 앞장을 서서 달리던 임영신이 경찰에게 맞아 기절했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굽히지 않고 계속 만



전주3.1운동기념비(전주신흥학교)

세를 부르다가 기어이 기전의 결사대 10명이 경찰에게 붙잡혀가게 되었다. 이때의 10명은 임영신, 김공순, 김신희, 송순이, 최금주, 최애경, 최요한나, 정복수, 함연순자매 등이었다. (『기전 80년사』)

일본 경찰에 의해 일단 흩어진 시위대는 오후 3시경 500여 명의 군중이 다시 남문에서 본정(本町, 현 다가동) 우체국으로 향하자 일본 경찰은 일본도를 휘두르고 소집된 소방조원들이 불을 끌 때 쓰는 갈퀴리로 마구 찍어 강제 해산하였다. 일본 경찰은 주모자를 색출하기 위해 빨간 물감을 시위 군중에 마구 뿌린 뒤 물감 묻은 사람만을 요소에서 무작위로 잡아들였다. 이렇게 잡힌 사람들만 200여 명에 달하였다. 당일 오후 9시 230여 명의 시위대가 다시 도청 앞에 모여 만세를 부르고 애국동포의 석방을 외치다가 검거되었다.

다음 날 박태련은 신흥학교 교사 유명민, 문병무 등과 함께 학생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완산동 용머리고개에 집결하였다. 첫날과는 달리 신흥·기전학교가 위치한 용머리 고개에서 만세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보고에 의하면 14일 오후 3시경 용머리고개에서 300여 명이 집합하여 본정 2정목(현 다가동 웨딩거리) 방면으로 만세시위를 했으나 경비대의 저지로 해산되었다. 신흥·기전학교 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 기독교도, 천도교도 등이 참여한 이날 시위로 16명을 검거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체포된 사람은 90명이었다. 박은식은 『독립운동지혈사(獨立運動之血史)』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전주의 여학생 임영신, 정복수, 김공순, 최애경, 김인섭, 최요한나 강점순, 최금주, 김신희 등 14인이 독립운동을 하고 간했는데 여학생들은 필사의 결심으로 음식을 단식한 지 4일이 되었다. 일본 검사는 위압으로 심문하였으나 여학생들은 화평한 기상과 담대한 언사로 대답하되 우리가 어찌 너희들의 판결에 복종하랴? 너희들은 우리 강토를 강탈하고 우리 부모를 학살한 강도이거늘 도리어 삼천리 주인이 되려는 우리를 비범이라 하니 이는 불법한 판결이라 하였더니 검사가 대노하여 칼을 빼어 한 학생의 왼쪽 귀를 찌며 여러 학생의 의복을 다 벗겨 나체로 세워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학생을 조롱했다.

이때 임영신은 검사의 따귀를 때리며 섬 오랑캐의 관습을 감히 예·의·인(禮義仁)에게 행하느냐? 하였더니 검사는 또 묻되 너희 조선에는 군함과 대포와 병정이 없는데 어떻게 완전 독립을 하겠느냐? 학생들 대답은 금후의 시대는 군함, 병정, 대포가 사태가가 날텐 데 네가 그런 조건으로 질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검사는 말하되 누가 너희를 시켜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학생의 대답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국이 의(義)를 지팡이 삼아 일어나 만세를 일제히 호창한 것이거늘 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는 진실로 세계적 정세에

어두운 섬사람이다.

3월 13~14일 양일간의 전주 만세운동에서는 살상의 비극은 없었으나 천도교인, 기독교인, 남녀 학생, 시민 등 총 164명이 검거되었다. 전주의 만세운동이 이틀로 끝난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후 5월 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5만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투옥자는 556명에 달했다고 한다.

한편, 전주의 만세운동을 적극 후원했던 김인전목사는 주모자로 체포령이 떨어지자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된다. 김인전 목사는 임시정부 정무차장, 재무비서, 공채관리국장 등을 거쳐 1921년에는 임정의 학무총장을 지냈다.

### 전주사범학교, 비밀결사 ‘우리회’

1942년 6월 ‘우리회’라는 비밀조직이 만들어졌다. 전주사범학교 2,3학년 학생 중 민족의식이 눈을 뜬 일부가 교장 쓰시마의 노골적인 민족차별과 모멸적인 태도에 울분을 터뜨리던 중 의기 투합하여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려는 데 뜻을 모우고 비밀결사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르렀다. 우리회는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

첫째, 우리들은 어머니를 잊자! 대사를 일으킴에 있어 모정이 앞서서는 나약해지고 저해가 된다.

둘째, 우리들은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이탈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셋째, 우리들은 하나의 무명용사가 되자! 명예도 지위도 다 팽개치고 평등한 처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오로지 투쟁한다.

넷째, 우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단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선발대로서 독립운동의 온상인 만주로 국경을 넘어가 활동한다.

다섯째,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선 학업을 계속하고 졸업 후에 임지를 함경도나 평안도 두메산골로 희망하여 발령을 받도록 지원하여 만주에 인접한 곳의 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만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신속하게 연결을 갖도록 한다.

비밀결사 강령에 따라 회원 중 김학길, 박완근, 이동원, 이일남 등이 자원하여 만주로 떠났고, 국내에서는 길동순, 이종원, 권상룡, 김용규 등이 주축이 되어 매월 회동하고 동지의 규합, 자금의 염출, 친일 분자의 응징, 일장기의 파훼, 민족차별에 대한 항의를 전개하였다.



전주남문시장 전경

결국 이들은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지목되어 퇴학당하거나 경찰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만주로 간 회원은 자금조달과 조직이 여의치 않아 귀국해 있던 중 당시 순창출신으로 순창농업학교의 화령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조영철(전주사범학교 회원 확장책)이 체포되어 우리회의 조직과 활동상이 드러나게 되었고 1945년 1월 전북도 경찰부와 일본군 헌병들에게 모두 체포되었다. 이때 체포된 사람은 김학길, 이일남, 박완근, 조영철, 권상룡, 길동순, 이종원, 김종규, 이경식, 고병석, 노동우, 나동섭, 신동빈, 오진동, 이동원, 임재혁, 박종한, 김성근 등이다.

전주는 천년고도이다. 역사의 깊이 만큼이다 전통도시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색을 띄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꿈의 꽃심’은 불교와 유교(유학), 천주교, 동학, 개신교 등 종교 사상적으로 풍부한 도시였다. 전주의 독립운동은 그 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 독립 이후의 정신에 주목한 금재 최병심의 선택이나 야소 학생들의 만세운동, 사범학교 학생들의 실천 투쟁 모의 등 국가를 되찾고 민족을 잃지 않으려는 하나의 뜻으로 모이는 힘의 원천들이 있었다. 새로운 역사찾기 친일의 색체를 지우고 망국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2017년 전주에서 계속되고 있다.



# 한국군, 국민의 군대 맞나



박병찬  
기자

마이클 맥피어슨(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은 20세기 미국 독립언론인의 전설 이지 스톤의 평전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평생 정부의 거짓말과 맞서 싸운 그의 역정을 드러내기에 이만한 제목은 없었다. 스톤이 얼마나 정부의 거짓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지,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그를 집요하게 사찰해 무려 1600여쪽의 파일을 남겼다.

스톤이 드러낸 대표적인 정부의 거짓말이 ‘통킹만 사건’이었다. 국방부는 미국 군함이 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아 파괴됐다고 발표했고, 모든 언론이 영무새처럼 국방부 발표를 그대로 유포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지만 스톤은 조목조목 의문을 제기하며 날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은 7년 뒤 국방부의 기밀문서가 폭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군은 특히 심하다. 19세기 중엽 크림전쟁 당시 영국군은 발라클라바 전투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경기병 여단이 러시아군을 향해 돌진하다가 불과 10분 만에 절반이 넘는 345명이 개죽음을 당했을 때도 ‘연전연승’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역시 본토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일 ‘황군의 승승장구’를 떠벌렸다.

우리 군에는 더 특별한 전통이 있다. 6·25 개전 초기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발표하고는 곧바로 도망쳤다. 군 수뇌부는 전방에서 북괴군을 격퇴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한강 다리를 폭파해 시민들의 피난을 막았다. 그러고도 사과 한마디 안 했다. 2012년 합참의장이 국정감사에서 ‘노크귀순 사건’을 두고 한 거짓말도 전자에 비하면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전통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2004년엔 작계5029, 서해 북방한계선 총격 사건을 둘러싼 군 당국의 은폐와 거짓말로 한참 시끄러웠다. 총격 사건에선 보고 누락과 은폐에 그치지 않고, 군 최고 정보당국자가 언론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통해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와 싸우도록 이간질했다. ‘작전계획 5029’ 추진은 이보다 더 심각했다. 우리 군의 국적을 의심케 했다.


미국은 1993년 이래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연합사 주관의 작전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1997년 12월 정권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군 당국은 미국의 요구를 슬그머니 수용했다. 새로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난처했다. 백지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의 내부 이상사태에 대해서까지 작전계획을 용인할 수도 없었다. 전사가 아닌데도 주한미군에 의한 주권 침해나 내정 간섭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올며 겨자 먹기로 1999년 절충한 것이 ‘개념계획 5029’였다. 개념계획은 도상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었다. 2004년 군 당국은 이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뒤늦게 이를 알고는 중단시켰다. 미국의 불만과 반발이 심각했다. 한미동맹 해체 운운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개념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성의를 표시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그보다 질이 더 나빴다. 정권교체기 어수선한 틈을 타 미국이 원하던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해치우려던 것은 같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을 어겼다. 또 ‘미국과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고의로 보고에서 누락했다. 군 당국한테는 미국의 의지만 중요했을 뿐, 국민이나 (국민이 뽑은) 군통수권자, 그리고 법률은 안중에도 없었다.

‘국군’은 국민국가와 함께 탄생한 국민의 군대를 뜻한다. 봉건왕조에선 왕 혹은 제후 또는 호족의 군대였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한 원인은 군인들이 국민의 군대, 나의 가족과 조국을 위한 군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변화는 왕조를 공화정으로 바꾼 혁명의 결과였다. 국민의 군대는 왕의 군대가 하루 8km를 행군할 때

40km를 내달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개탄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 군은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의 군대인가”, “과연 국민의 군대인가.” 두 번씩이나 쿠데타로 국민의 선택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니 국민이 나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받아들여기가 꺾끄러운지 모른다. 그렇다면 미국에 대한 충성은 왜 그렇게 맹목적인가. 

※ 위 글은 한겨레신문(2017.06.07.)에 게재된 기사를 필자의 동의하에 전재한 글입니다.

# 술과 아편으로부터 조선의 황폐화를 지킨 “이효덕”



이 효 덕

한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핏빛 어둠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다 지쳐버린 동포들  
술과 아편에  
맑은 영혼 다칠까

목청 돋워 방방곡곡  
피울음 토해내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외치던 임의 피맺힌 절규

동포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햇불로 남아 있으리

**이효덕 (李孝德, 1895. 1.24 ~ 1978. 9.15)**

이효덕 애국지사는 평양의 양무학교 시절, 서울의 3.1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평양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교장과 교감 등 교직원 18명이 잡혀들어 갔는데 이 가운데 여성은 이효덕 지사 한 분뿐이었다. 이효덕 지사는 감옥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숨겨 남다른 슬픔을 겪어야 했다. 이 지사의 어머니는 남다른 교육열로 9살 때부터 집에서 120리나 떨어진 평양으로 유학을 보내는 등 극진히 보살피 주었다. 그런 어머니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절제회> 총무 일을 보면서 동포들의 정신교육에 힘쓴 이효덕 지사는 민중이 술과 담배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항일운동에 힘쓰도록 전국을 돌며 10년 동안 강연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2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이윤옥(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세계문인협회 정회원. 시집으로는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있는 『서간도에 들꽃 피다』 전6권, 영문판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시집『41 Heroines, flowers of the morning calm』, 『FLOWERING LIBERATION -41 Women Devoted to Korean Independence』 등이 있으며 친일풍자시집 『사쿠라 불나방』과 우리말 속의 일본말 찌꺼기를 다룬 『사쿠라 훈민정음』, 『오염된 국어사전』, 『창씨개명된 우리 풀꽃』, 외 다수. 



# 영화 <파란나비효과>, 사드를 향한 어느 시민 사회의 목소리



이 두 희  
자유기고가

박문철 감독의 영화 <파란나비효과>(2017)는 경상도 성주의 지역 사회를 배경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운동 과정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2016년 당시 성주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었던 성주군 지역 사회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영화는 지역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부터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이 계속되는 와중에,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중말고고도지역방어(THAAD) 무기인 사드의 배치 계획과 함께 성주포대를 후보지로 발표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여론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사드의 군사적 필요성이나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부담 등에 의구심을 가진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성주포대와 불과 수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성주군의 주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던 어머니들은 자진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나서게 된다. 그 후 이러한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더해져 자발적인 시민들의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고민 없이 정부의 정책들을 지지해오며 집권 정당에 투표를 해왔던, 보수 성향의 주민들이 처음으로 국가의 결정에 의심을 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감독은 사드 배치의 찬반 논점보다는 지역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람들의 변화를 영화에 담기 위해서 감독은 작위적인 연출이 아닌 대상과의 관계 맺기에 계속 노력한다. 사실상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 대부분은 아이들을 둔 어머니이거나 집안일과 함께 농사를 돕던 평범한 주부들이었다. 군청 앞에서 일인 피켓시위를 하고 집회와 바자회 등을 준비할 때는 시민운동가의 모습을 보이던 그들은, 때때로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없이 어떻게 성주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는가를 고백하기도 하고 생업에 대한 고민 등 자신의 사사로운 속내를 수다스럽게 이야기하는 개인들로 비춰지기도 한다. 사실 공중파 방송 등의 언론 인터뷰에서 찾기 힘든 이러한 친근한 모습들 덕분에, 영화는 인물들로 하여금 사회적 갈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의식화하고 운동가로 변모하게 된다는 극적 전형들로부터 다소간 벗어나게 해준다.

참고로 박문철 감독의 전작 <마이플레이스>(2013)는 가족에 대한 영화였다. 이 영화는 캐나다에서 역이민을 온 감독 자신의 가족사를 배경으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 비혼모로 살기로 결정한 여동생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었다.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적 맥락이 교차하는 영역들을 새롭게 조명한 이 영화는 관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국내

외 영화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파란나비효과>에서도 역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감독의 이러한 장점은 인물들과의 관계를 담는 장면들에서 은근하게 드러난다. 다만 영화 속에서 사드 반대 투쟁의 경과를 전달하는 일부 장면들의 객관적인 거리감은, 인물들의 감정과 의식의 변화를 드러내는 순간들의 친밀한 공간감과 형식적으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영화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쟁점을 발전시키기보다 갈등의 진행을 묘사하는데 더 치중하기도 하였다.

영화의 전개는 반대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사드 배치 후보지를 성주지역 내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한 목소리로 사드 배치를 함께 반대하던 이들이 정부의 후보지 재검토를 찬성하는 군청 및 관변단체들과 사드 배치 완전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로 나뉘게 된 것이다. 계속되는 군청의 외면과 방해 속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를 한반도의 평화 운동으로 여기게 된 주민들은 이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참고로 영화가 제작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국정논란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의 혼란스러운 와중에 국방부는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하고 만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 속에서 보수 진영을 비롯한 정치권마저 점차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성주 주민들의 시민운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과 성과를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나비효과>는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형성 과정에 대한 의미 있는 모습들을 담고 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시장과 위임을 넘어 군림하는 권력지향적



▲ 영화 <파란나비효과> 중에서





인 국가 사이에서, 성주군의 사드 반대 운동은 시민 개개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공동체 안에서 시민 사회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맥락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의 결과만을 갖대로 이러한 운동의 성과를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성급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시민운동들은 일부의 오류와 한계 역시 불가피하게 지니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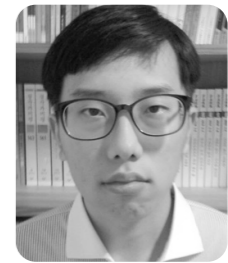
일례로 자신들의 생업도 제쳐두고 사드 반대 운동에 헌신적으로 매달린 어머니들의 절박함과 자기희생이 이러한 운동의 결과나 정당성을 반드시 보장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에 대한 확신은 운동의 큰 동력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은연중에 가지기 마련이다. 정의를 위한 외침이 때로는 분노의 대상을 찾는 일로 바뀌거나, 소통보다는 피아의 식별을 우선시하려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시민사회가 일부분 시행착오를 감수하는 것은 마땅히 치러야할 과정이며 사회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영화 속에서 한 어머니가 스스로 진실을 알기위해 고민하지 않던 예전의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했다시피, 진실이라는 문을 여는 일은 일단 시작한 이상 쉽게 그리고 혼자서 끝낼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급박하게 움직이는 대내외 일정과 주제가 가지는 시의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파란나비효과>가 현실의 단면으로서 포착하려는 우리들 모두에게 다가오는 변화의 순간일 것이다.



▲ 영화 <파란나비효과> 중에서

## 일제 강점하의 한반도 사회상 - 1920년대 초기 조선일보 지면을 중심으로



윤성환  
역사학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근래 글쓴이는 『조선일보』지면들을 전산상에 입력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과정에서 1920~80년대에 이르는 옛 신문을 부분적으로 접할 수 있었는데, 특히 1920년대 초반에 발행된 신문지면의 입력과정에선 당시의 조악한 활자와 오늘날과 다른 한글표기, 띄어쓰기 없는 줄글 서술로 인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식민지 조선사회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오늘날과 견주어볼만한 흥미로운 내용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해 한 번 소개해보고자 한다.

우선 1920년대 초반의 신문에선 “독립단 출현”과 같은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가령 1921년 9월 12일자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내에 파견한 특파원이 종로경찰서에 체포된 소식, 경남 창녕·마산일대에서 활약하던 독립단에 대해 마산경찰서에서 일제 검거에 나선 소식, 평북 용천에선 군자금 모집하는 독립단이 출현해 당국이 극력 수색 중인 소식

등 무려 세 건의 관련 기사가 연달아 확인된다. 이후에도 평안도, 함경도와 같은 국경 지방에 무장한 독립단이 출현해 주재소를 습격하고 자취를 감추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특히 1921년 의열단원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사건은 일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 같다. 사건 자체의 충격도 물론이지만, 범인을 즉각 체포하지 못하면서 일제 당국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던바, “이번 총독부에 던진 폭탄사건에 대하여 경성 시내 각 경찰서에서는 물론이요 전 조선의 1만2천이나 되는 경관들이 과연 노심초사해가면서 수사하고 정당하는 모양이지만 아직도 체포하지 못하였고 모두 힘만 쓰는 터이라. 그러나 아직도 체포될 무슨 동기도 보이지 아니한 듯한데, 기자는 어제 오전에 서대문 경찰서장을 방문한즉 동(同)서장은 근심 있는 빛으로 … 이같이 불상사가 일어난 책임은 조선에 있는 전부의 경찰관과 군대 전부의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으로 말하면 서대문 관내에는 없는 듯해요”라고 말했다는 기사는(1921년 9월 18일 자. 철자법은 글쓴이가 현대어로 고침, 이하 인용문 동일) 당시 일제 당국이 체감한 충격의 크기와 굴욕감을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은 저 남쪽의 부산까지 영향을 미쳤다. 총독부 폭탄 투척 사건 이후 전국 각지의 경계가 매우 엄중해진 와중에 부산의 관공서에 불을 지른다는 험박장이 날아들자 부산 세관서(稅管署)는 두려움에 떨며 전 직원이 밤새 경비에 나서는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한다.

이처럼 적극적인 항일해방투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운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됐다. 다음은 1921년 9월 18일자 기사 중의 일부다.

“근래 유행병인 동맹휴업(同盟休業) 동맹파공(同盟罷工) 동맹휴교(同盟休校)는 소위 신지식을 가진 자의 상례로 하는 것 같이 되었는데 … 또한 청년의 입에서는 누구나 다 입으로 ‘데모크래씨’를 창도치 않는 자가 없고 이것을 주창치 아니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이 ‘데모크래씨’가 비상한 만연력(蔓延力)을 가지고 우리 교육계까지 들어오게 된 것을 말하고자 함 이로다.”

이 구절은 1919년 3.1혁명(운동)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던 1920년대 초의 사회적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흔히 우리 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미국에 의해 이식된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상은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의 학생, 청년 지식인, 농민, 노동자, 여성들이 이미 각자 ‘데모크래씨’를 전파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1923년 6월 26일자「고무 여공(女工)이 전부맹휴(全部盟休)」라는 기사에 따르면, 용산의 대륙고무공장에 새로 부임한 일본인 간부가 경성 시내 각 고무공장주들과 담합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하하자 먼저 광희문 밖 고무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동맹휴업을 시작하고, 스스로 노동자 대표를 선출

해 시내 각 고무공장과 연대를 이룩하여 수백 명의 여성 고무공장 노동자들이 동맹휴업을 단행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한다. 이에 당황한 남대문 고무공장에선 모든 공장 간부가 직공 한 사람 씩을 불러 출석여부를 다그치는 한편, 파업 주동자 6명을 내쫓기까지 했지만,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여성 노동운동의 선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당시 신문지상에는 「노국(露國)의 연구」라는 제하에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 당국의 사회정책을 다룬 기사가 연재되고, 노동문제와 관련해 자유주의·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등의 이념이 소개되고 있었다. 예컨대 사회민주주의를 두고 “사회주의 조직의 실행을 보통선거의 투표로써 의회에서 다수 찬동자를 얻어 행하자는 것”이라 소개한 구절이(1921년 9월 18일자) 흥미롭다. 또 1921년 9월 12일자에 실린 논설 「소작(小作)과 사회정책」의 다음 내용은 오늘날에도 음미해볼 만하다.

“산업의 자유경쟁은 필연의 결과로 자본가라 하는 불로(不勞)계급과 무산계급을 발생시킨다. 고로 산업의 자유경쟁을 인정하는 사회는 생산의 발달을 도모함에는 최선이나 동시에 다수가 평등의 행복을 누리는 데는 최악이다. … 현대사회에서 문명의 진보와 사회의 행복을 기억하려면 일면 산업의 자유를 유지함과 함께 일면 경제적 열패자(劣敗者)의 소위 ‘생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산업자유를 유지하는 반드시 사회정책 즉 무산자(無產者) 광구(匡救)의 실행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회진화에 대한 합리적 주장이다.”


‘계급’이라는 언어 자체를 공론장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오늘날과 비교할 때 이채로운 인상을 주는 글인데, 다수가 평등의 행복을 누리려면 경제적 열패자에 대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는, 오늘날 통용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다만 무산자를 위한 사회정책 실시 주장을 사회진화론의 언어로 풀어나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경쟁·발전 담론과 결부되기 쉬운 사회진화론을 오히려 사회정책 실시 주장에 전유해버리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한편으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방식이 차츰 일상 속으로 확대되고 있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 신문광고를 보면, 오늘날의 상업 방식이나 투기 풍조와 다를 바 없는 경품추첨·할인판매·폐업정리·미두(米豆) 등이 확인된다. 특히 시계 광고 중에 “생존경쟁에서 우승기를 점령할 자”라는 문구는 흥미롭기 그지없다. 이는 시계가 근대의 생존경쟁 담론과 함께 수입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생존경쟁 담론이 당시의 ‘시대’를 지배하는 언어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현대 사회에서 생업을 위해 시간에 쫓겨 사는 우리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는가?

그런 한편 전통적 신분 갈등의 잔영도 지속되고 있었다. ‘지금 세상에도 양반이 그리 좋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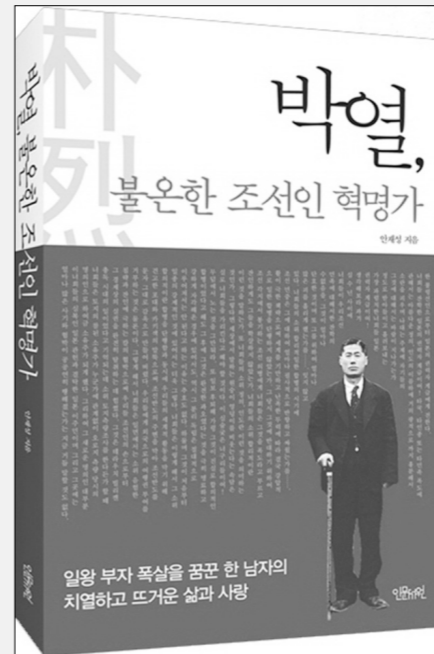


까 라는 부제가 붙은 「계급투쟁의 살인」이라는 기사는 경기도 장단군의 두 주민이 시장에 다녀오던 중 서로 양반-상놈 언쟁을 벌이다 결국 한 명이 살해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1923년 6월 28일자) 국내에서 백정 차별에 반대하는 형평운동이 일어나고, 상해에서 활약하던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에 고무되어 재차 국내 선전활동을 도모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1923년 6월 27일자) 한편, 조선인에 대한 민족 차별 역시 지속되었던바, 원산부청에서는 일본인 거주 구역에만 먼지 제거를 위한 물을 뿌리고, 조선인 거주구역은 도로조차 완전하지 못해 부청(府廳) 당국에 대한 조선인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한다.(1923년 6월 26일자)

이처럼 신문지상에서 확인되는 1920년대 초 식민지 조선사회는, 담론의 영역에선 ‘민주주의’와 ‘생존경쟁론’(또는 사회진화론)이 시대조류의 양축을 형성하는 한편, 현실 속에선 각계각층의 계급의식이 고양되어 생존권 확보·차별 철폐·권리 신장을 위한 실천이 분출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적 방식이 일상으로 침투하는 전환기를 겪고 있었다. 

# 박열, 불온한 조선인 혁명가

• 지은이 | 안재성 • 출판사 | 인문서원 • 쪽수 | 296쪽



**일왕 부자 폭살을 꿈꾼 한 남자의 치열하고 뜨거운 삶과 사랑**

『박열, 불온한 조선인 혁명가』는 패기만만한 청년 혁명가에서 북으로 간 항일투사로 마침표를 찍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기록한 책이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한마디는 재판장에게 제출한 논문의 한 구절이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해도 우리들은 이처럼 잔인한 운명에 대하여 순종할 수는 없다.”

역사는 박열의 삶을 일본 왕세자 결혼식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다는 ‘대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장장 8,000

일, 22년 2개월에 이르는 기나긴 옥살이를 한 불굴의 항일투사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최후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가 삶을 마감한 곳이 북녘 땅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 때 납북된 지 24년 만에 날아온 소식은 ‘부음’ 이었고, 대한민국은 뒤늦게 그의 공로를 재평가하여 추념했을 뿐이다.

박열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카테고리에서는 ‘아나키스트’로 규정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박애주의자’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주의나 주장보다도 그들이 내세운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었다. 평생의 동지이자 연인이었던 가네코 후미코와 함께 꾸었던 혁명의 꿈과 재판정에서 함께 외쳤던 ‘자유와 평등’은 대한민국이 일구어낸 민주주의의 역사와 더불어 오래도록 기억될 가치다. 그러므로 일제에 맞서 싸운 수많은



항일투사들 가운데 박열이라는 투사의 존재가치에 대한 작가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참으로 적절하다.

“박열이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재판정에서 보여준 그의 기개 때문이다. 또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민의 깊이 때문이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 투쟁과 굴종 등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은 제 문제들을 고민하고 회의하고 또 질타하는 그의 연설문과 논문은 오늘날의 현실에도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 인물로 보는 해방정국의 풍경 - 역사 국정교과서 유감

• 지은이 | 신복룡 • 출판사 | 지식산업사 • 쪽수 | 416쪽



한국정치사상사와 현대정치사 연구의 석학 신복룡 교수가 한국의 근현대사의 이면을 인물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나간 화제작이자 수작. 《주간조선》에서 연재 중단이 될 정도로 논란 속의 실명 인물들이 펼치는 생생한 이야기(총 28장)를 냉철하고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재조명했다. 사건 중심 서술에서 놓칠 수 있는 인물 중심의 입체적 시각으로 현대사에 감춰진 진상과 민낯 및 핵심문제와 해결 방안까지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 책의 의도는 곧 “사람 냄새 나는 삶의 모습들”로써 백 오십여 년 전 구한말부터 해방과 6·25 전쟁까지 이어지는 굴곡진 현대사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학계의 선행 연구나 역사학의 주류 논쟁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저자의 말처럼 더 “현실감이 있으며”, 논문에서 차마 쓸 수 없었던 비사와 일화들로 책에서 눈을 땔 수 없다. 19-20세기 이승만, 김구, 여운형, 박헌영 등만이 아니라 맥아더, 스탈린, 모택동 등 미소중일의 거물들이 저자의 해박하고 구수한 이야기 솜씨로 살아 움직여, 마치 근현대 세계사 영화를 보는 듯하다. 특히 실명으로 등장하는 국내외 인물들과의 인터뷰와 발로 뛰어 수집한 사진 자료들은 역사의 진상을 생생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인물을 키워드로 현대사를 다시 보는 시도는 이데올로기로만 해석되어온 역사를 더욱 균





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분단과 동족상잔이라는 해방정국 내부의 비극을 빚어낸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저자가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이데올로기에 집착했던 것만큼 그것을 숙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동안 현대사 연구자들은 한국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과장해온 경향이 있으나, 좌우익의 이념은 정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했다. 이념 문제로만 여수 · 순천 사태를 바라본다면 좌우익을 떠나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들의 해원 문제는 도외시될 것이며, (제19장) 홍명희가 남북협상 이후 혈육의 정에 이끌려 남한에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제1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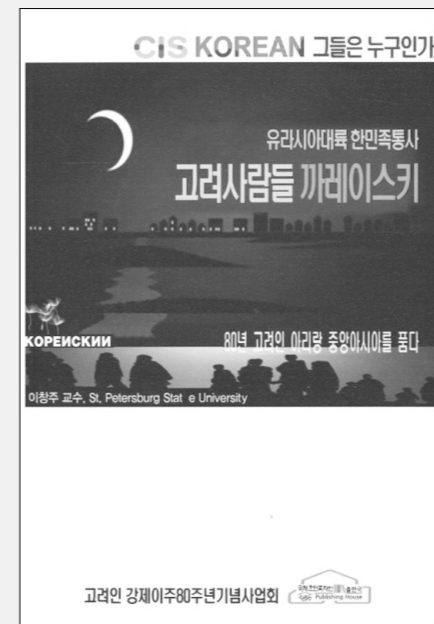
한국의 좌우익은 미성숙하고도 극단적 도그마로 내부 파열이 극심했기에 그때 고하 송진우나 설산 장덕수 등 중도주의자들의 내세운 이성적인 판단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다. (제4장, 제6장) 중도파들은 대중 호소력과 실행력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지만, (제6장, 제7장) 고하 등이 남긴 정치적 유산은 좌우익의 대결 구도가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주된 정조가 비극적 현대사를 다룬 장송곡의 느낌만은 아니다. 역사적 현장 또한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에, 사람 내음 물씬 풍기는 비화, 일화들이 장마다 펼쳐진다. 그러므로 이 책은 근현대 역사의 진실을 흥미롭게 알고자 하는 독자들 모두에게 아주 권장할 만한 필독서라고 할 수 있겠다.

재미와 지식이라는 읽는 즐거움이 가득한 책이지만, 이 글들 하나하나에는 인물사 연구자로서 저자가 감내해왔던 고통들이 숨어 있다. 송사를 당하기도 하고, 갇은 위협에 시달려오면서도 저자가 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버지가 겪은 원통함이다. 여수 · 순천 사건 때 보도연맹에 잘못알고 들어갔다가 고문으로 초주검이 되어 돌아온 아버지의 고통 (제19장)에 견주면 저자의 고초는 약과일지 모른다. 21세기를 사는 한국인들은 그러한 현대사의 비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비극적 현대사의 유산을 안고 있는 저자의 해원이자, 동시에 독자들에게는 현대 한국인들의 뿌리를 반추하고 그 유산을 평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다.

## 고려사람들 까레이스키

- 지은이 | 이창주 • 출판사 | 국제한민족재단출판국
- 쪽 수 | 2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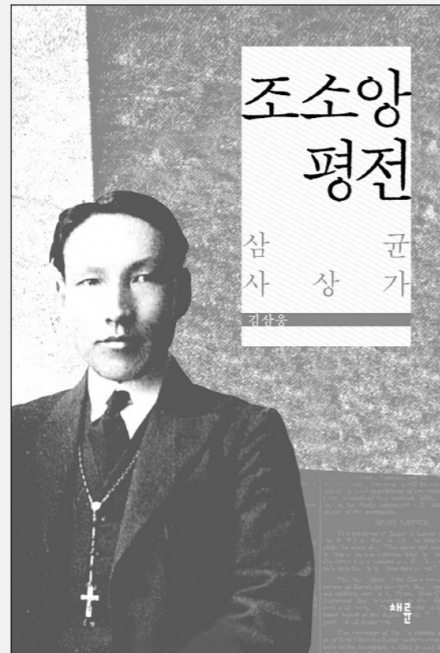


2017 고려인중앙아시아강제이주 80년을 맞아 기념사업회가 독립국연합(구 소련연방) 고려인들의 디아스포라 삶 흔적 숨결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를 심어 가는 고려인 통사 『고려사람들 까레이스키』.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게 된 역사적 잘못으로 인해 극동 시베리아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유랑과 정착,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의 굴곡지고 서러운 비사를 한반도 한민족 관점에서 조명했다. 한 · 러 관계의 기원에서부터 개척과 투쟁의 치열하고 비극적인 수난의 민족운동사, 그리고 극복의 역사까지 시대의 굵이굵이에서 일어난 사건과 한민족의 얼을 간략하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하였다.




# 조소앙 평전


• 지은이 | 김삼웅 • 출판사 | 채륜 • 쪽수 | 366쪽



위기의 자본주의 시대에 더욱 필요한 조소앙의 삼균주의 사상

독립운동사 및 친일반민족사 연구가로서 수많은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한 김삼웅. 그가 이번엔 조소앙 삶과 업적을 이야기한다. 조소앙의 생을 좇으며, 그가 남긴 작은 흔적까지 놓치지 않고 살핌은 물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평론을 덧붙이고 있다. 조소앙은 평생을 독립운동과 삼균주의 사상 구현에 힘 쏟고, 해방 후에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남북되어서는 중립화 통일론을 추구하며 치열하게 살았다. 특히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개인·민족·국가 간의 균등을 이루자는 그의 삼균주의는 근 1세기 전에 태어났지만 오히려 오늘날 더욱 생각해보아야 할 정치이념이 되었다. 현대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타파할 길이 '삼균' 사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 평전이 삼균주의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우리에게 이런 정치사상가가 있었음에 경탄을,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양극화 사회에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좋겠다. 

이 평전이 삼균주의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우리에게 이런 정치사상가가 있었음에 경탄을,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양극화 사회에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좋겠다. 

제3회 서울 연극인 대상 '대상' 수상작인 '불량청년' 이 돌아왔다.



'불량청년'은 정치 문제에는 전혀 관심 없는 28세의 청년 김상복이 시간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극은 2015년 초연 때와 비교해 변화를 거쳤다. 초연 때는 김상옥이라는 위인의 일대기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위인전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고민과 연결시키고자 했다.

극 속에서 김상복은 독립 운동가들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왜 그들이 자신과 가족을 희생해가면서까지 고통을 피해가지 않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의 관객에게까지 이어진다. 공연은 대학로 30스튜디오에서 5월 25일~6월 11일,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6월 17~25일 펼쳐졌다.

## 본회 회보 편집위원 변동안내



오랜 시간 본회 회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신 이학노 선생님이 개인사정으로 2017.07.12일 사임하고 신임 편집위원으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석우 선생님 (자유기고가), 김대영 박사님(사단법인 대한민국 지식중심 이사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이학노 선생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임 편집위원이신 최석우 선생님과, 김대영 박사님의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한국의 잔다르크 정정화 여사’를 기리는 연극, 달의 목소리



연극 <달의 목소리>가 오는 7월 6일부터 23일까지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달의 목소리>는 임시정부 안살림과 독립운동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게 한 인물인 정정화 여사님의 회고록 <녹두 꽃>를 바탕으로 쓰인 작품이다. 이번 작품 <달의 목소리>는 재현중심의 연극에서 벗어나 강연식 연극과 신 다큐멘터리 연극을 표방한다. 재현을 통한 이야기 전달 방식을 버리고 일인 배우의 출연만으로 담담히 관객과 대화를 펼쳐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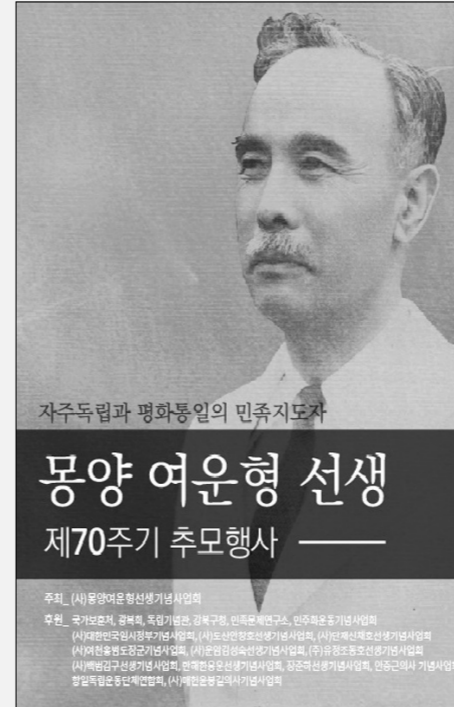
공연 정보

제목 : 달의 목소리

공연날짜 : 2017. 7. 6(목) ~ 7. 23(일)

공연장소 : 대학로 동양예술극장 3관

몽양 여운형 서거 70주기 추모행사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부영)는 서거 제 70주기를 맞아 7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추모식과 추모공연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70주기 추모행사는 전날인 18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평화통일시대에 다시보는 몽양 여운형’이라는 주제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강연을 한다.

추모 당일인 19일 오후 2시 추모식이 열리며, 이어 오후 3시부터 무용가 장순향, 평화의 합창단, 노래하는 나들 등이 무대에 올라 고인을 추모한다. 이에 앞서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유족들은 오전 11시 서울 우이동 몽양 묘역을 참배한다.

호주 광복장학회, 간담회 및 대학생 환송모임



재호 광복장학회(이사장 황명하, 이하 장학회)는 6월 30일 스트라스필드에서 간담회 겸 중국 답사교육을 떠나는 대학생 환송모임을 가졌다.

장학회는 지난해 3.1절을 기해 '21세기 청소년 독립운동가 육성'의 기치 아래 광복회 호주지회의 산하 재단으로 설립됐다. 초년도 장학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호주 거주 한인 대학생 대상 2기 장학생 2명으로

호주국립대학교 4학년 양준석씨와 호주국립예술학교 3학년 최혜원씨를 선발해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중국 서안, 낙양, 북경 등에 6개 도시의 독립운동사적지 답사교육에 참가한다.

광복회 장학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답사와 미래지향적인 역사 공감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왕복 항공료와 중국 답사경비 일체를 지원한다. 모임에서 황이사장을 비롯한 장학회 임원들은 두 학생에게 따뜻한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고 학생들은 좋은 기회를 살려 많은 것을 보고 배워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모임에는 지난해 1기 광복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에 다녀온 학생들도 함께했다.

한편, 장학회는 2017년도 청소년(7~12학년) 대상 2기 장학생 6명을 선발하여 오는 11월 17일 제 7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에서 1인당 장학금 \$300, 장학증서, 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안동 죽헌고택 개관식



안동 죽헌고택(안동시 서후면 태장죽헌길 24)에서 는 새 단장 기념행사를 6월 15일(목) 오전 11시 개최했다. 본회의 김자동 회장 및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죽헌고택은 경북의 “口”형의 대표적인 가옥이며 한옥의 편리한 모델로서 2년여에 걸쳐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지원을 받아 새롭게 단장했다.

이 고택은 대한제국기 중추원 의장이며 독립운동가인 동농 김가진(1846-1922) 선생이 조선 고종 23년(1886)에 지은 집이다. 고종 27년(1890) 죽헌 이현찬 공이 인수하여 현재 제사지내는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엘리자베스' 로드 지정 및 현판식을 시작으로 디딜방아 시연 체험, 오성다도 시



연, 공예품 전시 및 제작 시연, 풍물시연, 시낭송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죽헌고택은 앞으로 체험교육, 숙박, 카페 운영은 물론 6차 산업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 판매도 할 예정이다. 특히 '엘리자베스' 로드로 인한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입 그리고 일자리 창조 등의 지역 사회 발전과 안동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실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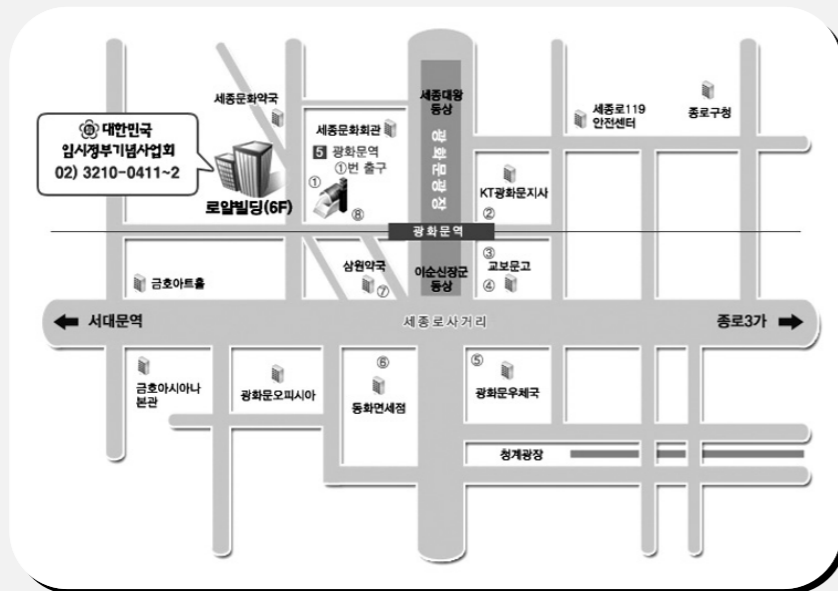
6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기존의 태평로 1가 오양수산빌딩 305호에서 세종문화회관 뒤편 로얄빌딩 6층 602호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기존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태평로1가)  
오양수산빌딩 305호

● 변경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당주동5)  
로얄빌딩 602호

\*\* 기존의 전화번호(02 3210-0411)와 팩스(02 732-2870)는 동일합니다.

\*\* 지하철 5호선 1번 출구에서 마주 보이는 건물 (1번출구에서 약 20m 거리)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7년 5월, 6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5월	6월	회원명	5월	6월	회원명	5월	6월
강만길		2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일선	20,000	20,000
강재욱	20,000	2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강찬모	20,000	2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종찬	100,000	100,000
곽태원	50,000	50,000	박제선	30,000	30,000	이창윤	10,000	10,000
권경업	50,000	5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창중	20,000	20,000
권영관	10,000	10,000	배다지	10,000	10,000	이철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배상윤	5,000	5,000	이학노	20,000	20,000
김광림	30,000	30,000	배석준	5,000	5,000	이학효	10,000	10,000
김동수	30,000	30,000	배해원	30,000	30,000	이항중	30,000	30,000
김동현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해나		20,000
김률근	10,000	3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해준	10,000	10,000
김봉현	30,000	10,000	방인섭	30,000	30,000	이현진	10,000	10,000
김삼웅	20,000	20,000	서동희	5,000		이호현	20,000	20,000
김선군	10,000	10,000	서봉수	10,000	1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성곤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성배	10,000	10,000	석혜진	10,000	10,000	임진택	5,000	5,000
김숙정	50,000	50,000	신명식	10,000	10,000	장두영	10,000	10,000
김순준	50,000		신윤경	500,000	50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영방	10,000	10,000	신홍범	10,000	10,000	장상록	10,000	10,000
김영일	10,000	10,000	심재권	30,000	30,000	장채령	10,000	
김용수	5,000	5,000	안재웅	10,000	10,000	전영복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안효진	10,000	10,000	정관훈	100,000	100,000
김윤영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은수	10,000	10,000	엄기남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엄승훈	10,000	10,000	정철승	30,000	5,000
김재홍	10,000	10,000	오상균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정록	70,000	70,000	오정섭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정인	20,000	20,000	오정수	20,000		조영빈	5,000	5,000
김종규	10,000	10,000	이상호	10,000	10,000	조용욱	10,000	10,000
김종성	10,000	10,000	원영애	20,000	2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중숙	10,000	10,000	유덕곤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진영	10,000	10,000	윤경자	40,000	40,000	조희환	20,000	20,000
김진현	50,000		윤용황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태원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천정배	10,000	10,000
김판수	5,000	5,000	윤철호	100,000	100,000	최권행	30,000	30,000
김학근	20,000	20,000	윤한욱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계환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홍수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수희	30,000	3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기자	10,000	10,000	최희주	10,000	10,000
남만우	50,000	50,000	이동진	20,000	20,000	한의석	10,000	10,000
노수문	20,000	20,000	이두엽		50,000	한홍구	20,000	20,000
노영택	10,000	10,000	이두희	30,000	30,000	함세웅	30,000	30,000
노웅래	20,000	20,000	이범중	100,000	100,000	홍범식	20,000	20,000
류동연	20,000	20,000	이상준	100,000	100,000	홍석천	5,000	5,000
류한수	15,000	15,000	이상준	100,000	100,000	홍용희	10,000	10,000
민향선	30,000	30,000	이상훈	20,000	20,000	황명하	10,000	10,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양순	20,000	20,000	황용만	5,000	5,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영국	10,000	1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박용규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윤욱	20,000	2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응국	5,000	5,000			

2017년 5월, 6월 특별회비

회원명	5월	6월
(주)오토오티오	8,000,000	2,000,000

##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②4

### 문시환과 서대문형무소

문시환(1897~1973) 지사는 부산(경남 동래군 동래면 복천) 사람이다. 독립운동가로서 그가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1924년 2월 14일 《동아일보》의 “김정현 사건은 금일오전공판개명”이라는 기사를 통해서다. 그는 1923년 3월 8일 《동아일보》 “상해국민회의 의사내용”의 기사에 상해국민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노동분과위원으로 선출된 기록이 있다. 지사는 같은 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개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가 개최되자, 경남기성회(慶南期成會) 대표로 동 회의에 참가하여 노동위원(勞動委員)으로 선출된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대표회의에서 임시정부를 확대 개조하려는 안창호(安昌浩) 계열의 개조파(改造派) 간부로 활동하면서 ‘파리강화회의와 국제연맹 화부회의 등에서 실패한 경험으로 볼 때 남의 힘을 믿지 말고 자기 힘으로 서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을 말하고 다음에 통일방법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한 것발 아래 모이게 하되 그리하자면 이미 있는 정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운동 방략과 독립운동단체의 통일기관을 조직하기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의 결말이 흐지부지 끝나게 되자, 상해에서 김원봉을 만난 후 그의 권유로 보천교청년회(普天敎靑年會) 대표 강홍렬(姜弘烈), 배치문 등과 함께 의열단(義烈團)에 입단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고자 했다. 1924년 2월 14일 《동아일보》기사 “군자금 모집에 애쓰는 구여순의 여러 피고 두 번이나 단원재인 오세덕 이제 그들의 범죄 사건을 뚫건대”에서는 문시환을 비롯하여 구여순, 오세덕, 김정원 등이 김원봉을 만나 일본 관공서를 폭파하고 조선의 독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후 군자금 모집을 위해 강홍렬은 1923년 7월, 문시환은 1923년 6월 조선에 들어와 구여순, 오세덕 등과 활동을 개시하려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러나 1924년 2월 2일 《동아일보》 “김석현 사건 공판” 기사에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 군자금을 수 만원을 모금하다 잡혔다’는 내용을 통해 이들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확인된다. 법정 진술에서 문시환은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하고자 상해에 갔지만 의열단에 가입한 일은 없고, 조선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 자기는 본시 공부에 목적을 갖고 부산 육영회에서 보낸 유학생으로 중국에 있다가 공부는 안 하고 일시 독립운동에 기울어서 그와 같이 국민대표회의에 까지 참석하였으나 그 전도가 요원한 것을 깨닫고 조선에 돌아와 다른 사업에 활동하려고 상해를 떠나 조선에 왔다고 대답’하면서 동지들과 임시정부를 끝까지 보호하였다.

1924년 2월 24일 구여순은 징역 5년, 오세덕은 징역 4년 등을 선고 받았으며 문시환 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 끝난 후 재판장으로부터 판결 언도는 1924년 2월 28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선언되었다. 이에 김정현은 격렬히 반항하면서 재판장을 흘려보며 ‘너희들의 말 모두 듣기 싫다 강도정치 아래 희생될 나는 아니다’ 하면서 고성을 질렀다. 문시환은 즉석에서 ‘나의 죄목이 제령 제7호 제1조라고 하니 그것을 좀 설명하여 달라’ 하였으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거절당하자 ‘나는 즉시 공소를 포기한다’ 하며 간수가 씌우는 용수를 집어 법정에 던지며 ‘바가 죽일놈’ 하며 야단을 하다가 법정에서 수속을 마치었다. 법정을 나와서 형무소 자동차에 오르며 다른 동지들과 함께 소리를 높여 ‘대한독립만세’ 하고 부르면서 간수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1924년 3월 1일 ‘의열단원 복역 공소권을 포기하고’ 라는 기사에서 문시환은 다른 동지들과 공소를 포기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된 이후 문시환 지사는 경남지사, 국회의원 등을 거치며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삶을 살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 ◆ 입 회 원 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출금시작월	(      )월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만나는 동북아역사재단



## 독도연구소

독도에 대한 조사·연구,  
정책개발의 중심기관

[www.dokdohistory.com](http://www.dokdohistory.com)



## 독도체험관

독도의 자연과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신개념 박물관

[www.dokdomuseumseoul.com](http://www.dokdomuseumseoul.com)



## 동북아역사자료실

동북아 역사와 외교,  
독도와 영토·영해 등에 대한 전문도서관

[hflib.kr](http://hflib.kr)



## 동북아역사넷

동북아 역사자료DB의  
포털

[contents.nahf.or.kr](http://contents.nahf.or.kr)